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

Issues and Tasks for Successful Host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저자 (Authors)	변연하, 김동선, 김흥태 Yeon-Ha Byeon, Dong-Sun Kim, Heung-Tae Kim
출처 (Sourc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5) , 2011.12, 129-137(9 pag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5(5) , 2011.12, 129-137(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88570
APA Style	변연하, 김동선, 김흥태 (2011).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5), 129-137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

Issues and Tasks for Successful Host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변연하*, 김동선**, 김흥태***

Yeon-Ha Byeon*, Dong-Sun Kim**, Heung-Tae Kim***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대학교 스포츠경영전공**, 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요 약

본 논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의 선점과 함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이슈 확산을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전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적·지역적·경기적 측면의 현안 조명을 통한 과제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각 중 참고문헌 및 자료의 고찰·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경기시설의 합리적인 조성 및 사후활용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 알펜시아 지원특별법과 특구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메달종목 다변화를 위한 경기력 향상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효과 분배와 평화올림픽을 통한 새로운 올림픽 운동의 전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tudying for the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ssues and tasks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sections: 1)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2) The importanc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holding; 3) Issues and tasks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nd 4) Conclusion and suggestion.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sks. First,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expansion are needed. Second, optimal Olympic facilities and plans for their post-use should be prepared. Third, the special law and district to support Alpensia are required. Fourth, strategies to improve players' performance should be arranged. Fifth,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achievement and the peaceful Olympic campaign are needed.

Key Words :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lpensia, successful hosting

1. 서 론

1948년 1월 스위스의 휴양도시로 일명 ‘알프스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생모리츠(St. Moritz) 제5회 동계올림픽에 처녀 출전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는 강원도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는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과 함께 강원도의 환경적 강점을 심분 활용한 통합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대안적 가치 탐색의 일환으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을 향한 여정의 서막이 올려졌다. 그 후 2005년 3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출범을 통해 두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하였으며, 지난 두 차례의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 전개를 통해 유·무형의 자산 축적이 가능했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에 2007년 9월 4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세 번째 도전을 시작하였다[7].

평창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통한 새로운 무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기치 아래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제123차 IOC총회(2011.7.6)

의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1차 투표결과 과반 득표에 성공함으로써 개최권을 획득하였다[37]. 이는 전체 유효 투표수 95표의 약 66%에 해당하는 63표의 지지 속에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2018.2.9-25:7개경기,15개종목,87개세부종목)” 개최지로 세 번의 도전 끝에 성공하였다.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기여한 여러 가지 성공요인 가운데 90% 이상의 주민 지지에 기반한 범국가적 유치역량이 결집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18]. 이 결과 대한민국은 스포츠 메가이벤트인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대회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등을 일컫는 세계 스포츠 그랜드슬램(grand slam)을 달성한 여섯 번째 스포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확고한 위상의 영예를 부여 받게 되었다. 특히, 동계올림픽 종목의 특성상 선진국형 스포츠로 인식되는 점, 그리고 유럽중심의 주도권 전개 양상을 고려하면, 이 번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체육사적 의의와 함께 국가적 및 지역적 측면의 의의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올림픽은 단순한 글로벌 스포츠이벤트가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축제이다. 즉,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이념과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을 중지하고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화합과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인 것이다[17]. 이와 같은 지구촌 최대의 체육축전인 올림픽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산업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합과 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수단이나 국위선양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며, 개최국의 경제 개발이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16]. 이처럼 올림픽은 개인, 기업, 국가, 지역 등 현대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며, 스포츠 고유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데 그 기능을 다해왔다. 또한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 건강은 물론 여가문화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각광받게 되었다[22].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개최 도시 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경제적, 물리적, 관광·산업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정치적 효과 등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1, 32]. 이와 관련하여 한승백(2010)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 개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후광(halo)을 기대할 수 있는 환대(hospitality) 가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른바 경제적 효과, 지역발전 효과, 관광효과, 개최도시의 이미지 상승효과, SOC시설 확충 효과 등 소위 효과(impact)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24].

이처럼 올림픽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매개로 기대되는 잠재적인 이익과 가치를 여러 국가 및 지역들이 인식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투자비용과 인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11]. 이와 같이 올림픽 등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가 수반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단·장기적인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의 공감대 확산되면서 그 유치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류사회에서 스포츠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증대되며 하나의 사회제도 및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보다 가속화되었으며, 그로인해 스포츠를 통한 국가이익 창출 강화를 위한 노력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동계올림픽이 갖는 3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고감성 문화·인프라 및 경제력 등의 집약성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14]. 개최 확정을 시작으로 평창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6개) 약 5264억원을, 기반시설인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회 운영비용 등을 통해 약 20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36].

현실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이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갖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한 차원 높은 경기력 향상 방안과 합리적 시설 투자 및 사후 활용 방안 등과 같은 산적인 현안 및 과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통한 국가적·지역적·경기적 측면의 유산(legacy) 창출에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방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선행연구의 계통적 연구의 연속성 확립과 유치 후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한 이슈의 선점, 그리고 성공적 개최 방안의 논의를 통한 이슈 확산을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4-7, 11-13, 19-21, 24].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전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적·지역적·경기적 측면의 현안 조명을 통한 과제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전개 방법은 각 종 참고문헌 및 자료의 고찰·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II.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개요

2.1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개요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려는 도시는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유치신청서와 NOC 승인서를 신청도시의 소관 행정기관을 통해 IOC에 제출해야 한다. 올림픽 유치 신청도시의 소속국가는 해당 국가와 소관 행정기관이 올림픽 현장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임을 정부가 약속하고 보증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IOC에 제출해야 한다. IOC위원장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도시를 대상으로, 후보도시 점검을 위해 IOC위원, 국제경기연맹 대표, NOC 대표, 선수위원회 대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대표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는 후보도시의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IOC 총회가 개최되기 1달 전까지 서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개최도시 선정투표는 IOC총회에서 올림픽 개최 7년 전에 실시된다[25].

표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주요 경과

일 자	내 용
2007.09.04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출범
2009.10.15	IOC 유치신청도시 접수
2009.10.18	IOC 유치신청도시 발표
2010.03.15	IOC 신청도시 파일 제출
2010.06.21-23	IOC 공식후보도시 선정
2010.07.06	D-365결의대회 슬로건 발표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2010.09.13-14	IOC 공식후보도시 워크숍
2011.01.11	IOC 후보도시 파일 제출
2011.02.14-20	IOC 평창 현지실사
2011.05.10	IOC 후보도시실사 결과 공개
2011.05.18-19	IOC 테크니컬 브리핑
2011.07.06	IOC 총회 개최지 결정

이와 같은 과정을 전제한 세 번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주요경과는 <표 1>과 같으며, 유치과정에서 유치위원회는 보다 가속화된 유치활동의 상징적 측면에서 2010년 7월 6일 D-365일 결의대회를 통해 평창유치 명분과 유치 비전을 함축한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지평(New Horizons)』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지평은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무대(New Stage)’,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 ‘새로운 가능성(New Possibiliti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시아 대륙의 젊은 세대를 통한 동계 스포츠 확산을 강조하며 개최 성공에 이르렀다[33].

동계올림픽은 1924년 제1회 프랑스샤모니동계올림픽을 효시로 최근 2010년 제21회 캐나다밴쿠버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바 있고, 향후 2014년 제22회 러시아소치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적 대회 개요로 대회명칭은 ‘제23회평창동계올림픽’이며, 대회기간은 ‘2018.2.9-2.25(17일간)’이고, 장애인동계올림픽은 ‘2018.3.9-3.18(10일간)’으로 설정되었다. 대회 장소는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30분 이

내의 동계스포츠벨트 범위 내에서 개최 된다. 설상경기는 알펜시아·용평·보광·중봉 스키장에서 개최되며,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스피드, 피겨·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 경기가 개최된다. 참가규모는 약 80여 개국 선수 및 임원 그리고 IOC패밀리와 취재·보도진 등 약 2만 6천여 명으로 예상되며, 경기종목은 7개 경기 15종목 86개 세부종목으로 구성된다[3].

표 2.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요

구 분	내 용
대회명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기 간	- 2018.02.09-25(17일간) - 2018.03.09-18(10일간): 장애인올림픽
장	설상경기 평창(알펜시아·용평·보광·중봉) -알펜시아: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용평: 알파인(회전, 대회전) -보광: 프리스타일, 스노우보드 -중봉: 알파인(활강, 슈퍼G)
소	빙상경기 강릉(스피드, 피겨/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
참가규모	80개국 선수·임원, IOC패밀리, 보도진 등 2만6천여명
경기종목	7경기 15종목 86세부종목

[그림 1]과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관련 알펜시아 클러스터(평창)는 서쪽 산악지역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설상경기장, 선수촌, IOC본부호텔, 올림픽스타디움, 국제방송센터(IBC)와 메인프레스센터(MPC), 미디어촌이 설치된 모든 올림픽 활동의 거점 중심지역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코스탈(Coastal) 클러스터(강릉)는 동쪽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모든 빙상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이 설치된 모든 빙상 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한다. 다음으로 2개의 독립 경기장인 알파인(스피드)경기장은 올림픽 스타디움으로부터 30분(45Km)거리인 중봉에 위치하고, 프리스타일과 스노보드경기는 올림픽 스타디움으로부터 30분(44Km)거리인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열리기 된다[34]



그림1.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개요
출처: www.pyeongchang2018.org, 재구성.

부연하면 올림픽 경기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요구한 13개 가운데 7개가 완공 됐고 6개 경기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2009년 완공된 스키점프장은 최

대 5만여명을 수용 할 수 있게 확장, 개·폐회식 장소로 사용한다. 바이에슬른, 크로스컨트리, 알파인스키(대회전·회전), 프리스타일스키, 스노우보드 경기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6개 경기장도 기본 설계가 마무리돼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을 치를 수 있는 썰매 경기장이 평창에 신설되며, 정선의 중봉 지역에는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이 만들어진다. 빙상 경기가 열릴 강릉엔 아이스하키 경기장 두 곳과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경기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39]. 이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설상’과 ‘빙상’ 2개의 클러스터와 중봉과 보광을 의미하는 2개의 독립베뉴(Venue)를 30분 이내에 배치할 계획이며, 모든 베뉴들은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의 3중 입체 교통망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다음세대를 위한 그린올림픽”과 “저탄소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프로그램, 폐기물 제로관리 프로그램,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중립화 재 활용 감량분리를 통한 폐기물 무배출, 이상적 수준의 수질 관리 및 도시 생태계 복원 증진 등을 추진·계획하고 있다[34]. 이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차세대(Next Generation)를 위한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 창출의 일환으로 생태·환경올림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2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의

올림픽 등의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 및 의의에 대해 도키하로시(2004)는 올림픽이벤트를 통해 경제적 효과(직접경제효과/경제적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직접경제효과는 이벤트 관련 공공사업비, 이벤트시설 건설과 운영비, 이벤트 기간 중 소비에 효과가 있고, 경제파급효과에는 생산유발, 개인소득, 고용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지역 활성화, 환경정비, 이미지 증대, 산업진흥, 지역 정체성확립, 사회교육, 인재육성, 내수창출, 국제교류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다[9].

이와 같이 올림픽대회는 그 규모의 비교우위와 함께 직·간접인 경제적 효과가 개최 지역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많은 수의 국내외 관광객의 유인 요소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를 통하여 해당 국가 및 지역이 널리 홍보됨으로서 수출 기회 증가, 새로운 투자 증가 및 개최 지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개최 지역민으로 하여금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킴으로서 개최에 대한 성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27].

이와 관련하여 삼성경제연구소(2010)에서는 지난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전은 20조 1,768

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며, 아울러 이외에 자긍심 고취, 갈등 치유와 사회통합 제고, 국격 향상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소 등 계량화하기 힘든 효과를 추가하면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는 20조 1,786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다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국격 및 국가브랜드 제고가 가능하며, 국가이미지 상승 그리고 그 결과 선진국 진입 가속화를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하였다[14].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한 내용 중에 산업연구원(2008)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전국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20조 49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5배, 2002년 한·일 월드컵의 2배 수준으로, 중간재 투입을 제외한 부가가치 유발액만 8조75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에서 23만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대회기간 중 약 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강원도에서만 11조 608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 유발효과도 14만 1171명, 19만5000여명의 외국 관광객 방문에 따른 4778억원, 그리고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 종목 티켓을 208만2075장 발매해 2억 3500만달러의 수입과 라이선싱 사업에서 2700만달러, 기념주화 발행으로 700만달러, 복권 발행으로 1500만달러의 수입을 전망한다고 발표하였다[15]. 이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파급효과 가운데 특히, 경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올림픽 개최의 파급 및 후광효과(halo effect)가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2011)의 ‘평창동계올림픽개최의 경제적효과’라는 보고서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64조 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였다. 이처럼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의에 관련하여 유치위원회 및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크게 국가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바에 의하면, 국가적 측면에서의 언급으로는 첫째,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 둘째, 국가경제 활성화. 셋째, 최첨단 산업육성 및 세계시장 주도. 넷째,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다섯째,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증진 기여. 다음으로는 지역적 측면의 동계올림픽 개최 의의로서는 첫째, 사회간접지출(SOC)확충 및 지역발전 도모. 둘째, 개최지역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제화 촉진. 셋째, 아시아 지역 동계스포츠 확산 및 관광허브로의 성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3, 7, 34].

이상의 국가적 및 지역적 측면의 개최의의에 경기적

측면의 개최의의를 추가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동·하계스포츠 선진국 위상을 확고히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아시아 동계스포츠 선도 및 중심지로의 위상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동계 경기종목 최적의 인프라 구축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동계 경기종목의 홍보 등에 힘입어 저변확대 및 열기 확산에 이은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동계올림픽을 통한 국위선양과 애국·애상심 및 국제교류 등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등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 창출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함에 있어 제기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부정적 효과는 물가상승 및 개최를 위해 건축되는 건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 세금부담 등 개최도시의 재정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29]. 또한 Berg(2008) 역시 올림픽의 목적이 스포츠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경기라 언급하고 있고, Madden(2006) 또한 시드니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호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26, 30].

이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및 지역적, 그리고 경기적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측면으로, 아울러 긍정적 순기능 및 부정적 역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키기는 합리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한 노력이 요청된다.

III. 2018평창동계올림픽 현안과 과제

3.1 올림픽 기반시설 정비·확충 현안과 과제

하계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구조가 허약한 동계올림픽에 있어서 막대한 기반시설과 경기장 시설 조성을 통해 재정적 적자를 보였던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1998년 일본나가노대회와 2010년 캐나다밴쿠버대회가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특히, 나가노대회는 당시 조직위원회가 2800만달러, 약 310억원 흑자를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100억달러 정도 적자를 내며 부정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38].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접근성 개선과 편리성 도모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예산으로 첫째, 도로·철도 건설에 4조 7425억원. 둘째, 숙박시설에 7710억원. 셋째, 경기장에 5402억원. 넷째, 올림픽 빌리지에 8165억원. 다섯째, 미디어 빌리지에 3848억원. 여섯째, 양양국제공항 보수에 6억원 등 총 7조

2556억원 정도로 전망된다[26].

이와 같이 올림픽대회 유치 및 개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은 개최지역 및 국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및 국가에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 관련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중용한 이슈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중첩된 개발제한과 열악한 SOC 환경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는 불이익을 감소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균형적 복지환경 조성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및 균형적 복지(balance welfare) 차원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렇듯 올림픽 유치 및 개최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합리적 산출을 통해 사회적 부담의 최소화를 통한 모든이가 동의하는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개최도시의 숙박, 도로, 교통, 통신시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림픽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사전 및 사후를 염두한 철도·도로·공항 등의 효율성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특화된 동계스포츠복합단지 성격의 평창 알펜시아 클러스터와 강릉 코스타 클러스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동계올림픽 효과의 지속적인 후광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관광문화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대단위 위락 및 접객시설을 고려한 공항과 항만 등의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계올림픽 종료 후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기반시설 구축이 요청된다. 여섯째, 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숙박시설, 올림픽 및 미디어 빌리지 등에 과감한 민자유치 또는 사후 분양 및 매각을 통한 재정부담의 경감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3.2 올림픽 경기시설 조성·사후활용 현안과 과제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13개 경기장 중 7개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6개의 신설 경기장 예상 건립비용으로 첫째, 중봉 알파인경기장에 885억원. 둘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루지/슬켈리턴/봅슬레이)에 809억원. 셋째, 사이언스 오빌(스피드스케이팅)에 1161억원. 넷째, 아이스홀(쇼트트랙/피겨스케이팅)에 942억원. 다섯째, 강릉영동대체육관(아이스하키)에

665억원. 여섯째, 하키센터에 802억원 등 5264억원의 예산 투입이 전망된다[36].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환경문제 또는 막대한 재정부담 문제와 사후활용 문제 등일 것이다. 그 중 과도한 재정투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논리의 적용 차원에서는 경제운영의 준칙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 합리성, 수익성 등을 적용하기에는 한 가지 고려사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이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특성으로 대중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공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임을 상기할 때 더욱 더 경제논리에 의한 과도한 접근은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장 시설 자체가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 차원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면 그 가치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의 또 다른 관건 중 하나가 관련 시설의 사후 운영방안의 합리화 여부일 것이다. 일찍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는 중봉알파인 경기장은 올림픽이 끝난 뒤 스키리조트로 활용하고 빙상장은 시민체육시설이나 다목적 홀로, 또한 강릉의 하키센터는 가건물로 지어 대회가 끝난 뒤 원주로 옮겨 재활용 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동아일보, 2011.7.9). 이와 관련하여 강원발전연구원(2011)에 의하면 대회 준비단계부터 치밀한 분석과 계획으로 대회 후 유희화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장비, 기능, 인력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은 과감히 임시구조로 가야할 것으로 지적한 부분을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및 사후활용은 사전 계획 및 집행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의 다목적성과 상시 활용성, 그리고 경제성과 공익성을 철저하게 담보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경기시설 조성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의 합리화 및 최소화를 전제로 사후관리 및 활용의 합리화 및 활성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 조성 및 사후활용에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경기시설 조성원칙으로 다목적성과 상시 활용성 그리고 경제성과 공익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고증과 검토가 필요하겠다. 둘째, 올림픽 경기시설 조성에서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필수시설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고려한 다목적

훈련장과 복합 경기장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올림픽 경기시설 조성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극대화 하기위한 세대통합형 및 가족형 집객 및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올림픽 경기시설 조성에 있어서 사후활용의 유희화 및 사장화 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은 투자의 최소화 또는 임시구조물(temporary infrastructure)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올림픽 경기시설 조성에 있어서 생태·환경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통해 생태·환경적 강점을 가미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3.3 알펜시아 특구지정 현안과 과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계스포츠 복합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 알펜시아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1조68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7월 현재 7933억원의 부채를 보이며, 한 달 이자가 24억원, 하루 이자가 8000만원에 이르며, 올 해 상환부채만 1350억원에 달한다[38]. 알펜시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중 평창 알펜시아 활성화를 위한 올림픽 특구지정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알펜시아를 아시아 동계스포츠 및 관광 허브로 성장 발전시켜 다양한 가치창출을 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동향 가운데 알펜시아 및 특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권성동 위원 외 40인에 의해 ‘2018평창지원특별법안’ (2011.7.7)이 발의 되었으며, 7월 8일에는 국회차원의 지원 특위 구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 등을 발표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이 보다 가시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1].

강원발전연구원(2011)은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 수준에 맞는 외국인인의 수용과 투자 유치를 위하여 세계 수준의 교육, 의료, 위락 등 시설을 갖춘 국제자족도시의 건설이 절실하며, 이들 수요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하였다[1].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후속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평창 및 알펜시아의 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전략 추진을 통해 평창을 동아시아 나아가서 환동해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거듭 변모시켜야 하겠다. 즉, 스포츠·관광·휴양·생명·의료 등 연관산업이 망라된 동계스포츠 및 관광벨트의 다양한 가치창출이 가능한 복합동계스포츠단지조성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평창 및 알펜시아의 올림픽 특구 지정은 올림픽 자산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합되는 새

로운 올림픽 유치 및 개최 운동의 효시가 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및 특구지정에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 알펜시아 본연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차별성과 선명성 있는 동계스포츠·관광·레저·컨벤션 특구의 기능이 활용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알펜시아 관련 과다투자 및 운영의 불합리성 등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주체 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창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특구지정에 의한 사업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셋째, 동계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을 거점으로 하는 동해안권역을 동계스포츠관광레저 특구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넷째, 평창 알펜시아를 동아시아의 거점으로 환동해권 동계스포츠관광레저 특구를 염두한 공간조성이 필요하겠다.

3.4 메달종목 편중화·경기력 불균형 현안과 과제

우리의 동계스포츠 최근 성적을 간략히 언급하면 최초로 종합국제경기대회에서 우승한 2007토리노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필두로 2009하얼빈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그리고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종합 5위의 쾌거를 달성하였다. 그동안 빙상의 쇼트트랙에 한정된 경기력에 의존하던 것에 비하면 스피드스케이팅과 설상 종목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은 분명한 약진일 것이다. 그러나 동계스포츠 저변의 취약함은 선수자원 부족과 관련 인프라 미흡 등으로 나타나며 동계스포츠의 실상에 우려가 앞서는 현실이다.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 관건중 하나인 동계스포츠 경기력과 관련하여 종목간 경기력 불균형에 기인된 메달종목 편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계스포츠의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과 유망주 발굴, 그리고 빙상과 설상 종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즉, 메달종목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과 정책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시적인 사례로 정부는 2007년 동계스포츠 육성에 대한 계획으로 ‘Drive the Dream’을 발표하며 정부의 동계스포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전략의 일환으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Drive the DreamⅡ’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0].

이처럼 동계스포츠 메달 종목 편중화 및 경기력 불균

형 해소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전략의 추진들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수 저변이 확대되고 종목간 심화된 경기력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최상의 국제 경쟁력을 갖는 일부 전략적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전략 또한 중요한 전략적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메달종목 편중화 및 경기력 불균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달 편중화와 경기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수저변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신생팀 창단 유도과 이를 통한 종목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조기 유망주 발굴 및 양성 등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빙상과 설상 종목의 동반성장을 위해 설상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지원을 전제로 합동 및 전지훈련을 포함하는 상시훈련 체제구축과 함께 해외 우수 지도자 초빙, 차세대 지도자 육성 등을 포함하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의한 경기력 향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셋째, 동계스포츠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Drive the DreamⅡ’를 본격 추진함에 있어 선수중심의 전략과 함께 일부 전략종목(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일부 종목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우위의 지속적 확보 전략 또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5 올림픽효과 분배와 남북공동개최 현안과 과제

현 시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현안으로 올림픽 유치 확정 후에 강원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동계올림픽효과’ 분배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외된 지역발전에 대한 절호의 기회로 간주되는 올림픽 효과를 개최지역 위주 편중에 대한 우려로 판단된다[35]. 물론 IOC 기준과 원칙 등에 근거한 합리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나 강원도 지역사회에 올림픽 효과가 보다 폭넓게 전이되는 방안의 검토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림픽 유치 확정 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슈의 선점 논리에 가까운 남북공동개최 논란이 있다[40]. 남북단일팀 구성을 포함하는 평화올림픽 구상 등은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에서 항상 제기되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로 판단된다. 남북 상황이 다양한 변인에 의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동성을 갖기에 이 점을 염두한 올림픽 정신 구현을 통한 평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올림픽효과 분배

와 남북공동개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에 따른 소외감 등의 보상적 차원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강원권역 전체에 올림픽 효과가 폭넓게 파급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다. 일례로 동계올림픽 잉여금을 통한 강원도 숙원사업 지원 등과 같은 올림픽 효과의 실증적 체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남북체육교류 협력에 관한 적극적 행보가 요청된다. 이는 시간적으로 충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정부, 조직위원회, 그리고 IOC와 체육계 등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다방면에서의 남북체육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체육계, 강원도 그리고 동계스포츠 종목의 관계자 등이 망라된 명실상부한 메인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유감없는 추진력을 발휘되도록 인적 구성에 만전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 분야 차 세대 인재 및 스포츠외교인력 양성차원에서 메달리스트 및 동계종목 관계자의 영입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육성 방안 또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IV. 결 론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세 번째 유치에 성공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방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의 선점과 함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이슈 확산을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전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적·지역적·경기적 측면의 현안 조명을 통한 과제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각 중 참고문헌 및 자료의 고찰·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로서 올림픽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로서 올림픽 경기시설의 합리적인 조성 및 사후활용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로서 평창 알펜시아 지원특별법과 특구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로서 메달종목 다변화를 위한 경기력 향상 방안의 강구가 필

요하다. 다섯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로서 올림픽 효과 분배와 평화올림픽을 통한 새로운 올림픽 운동의 전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향후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을 통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지혜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원발전연구원,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정책메모, 제64권, 2011.
- [2] 강원발전연구원,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새로운지평 그리고 옹호한 비상, 정책메모, 제63호, 2011.
- [3] 김남수, 「국제스포츠이벤트와국가브랜드」 세미나 자료집, 대한체육회·국가브랜드위원회·삼성경제연구소, 2010.
- [4] 김동선, 2010동계올림픽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전략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4호, 2001.
- [5] 김범식,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가능성과 한국스포츠외교 역량강화 방안. 한국스포츠외교포럼 창립세미나자료집, 한국스포츠외교포럼, 2009.
- [6] 김 중, 2010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2010동계올림픽 흑자 운영방안, 한국체육학회, 2001.
- [7] 김홍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환경분석과 전략.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제5권 제1호, 2011.
- [8] ———, 2010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전, 동계스포츠 확산과 지속적 발전방안 세미나논집, 한국체육학회, 2010.
- [9] 도키히로시, 스포츠와 지역진흥:나가노동계올림픽의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회 한일지방자치국제세미나자료, 2004.
- [10]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의 꿈 이렇게 이뤄집니다, 보도자료, 7.14, 2011.
- [11] 박상원,김태희,장경로,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지지도 및 협력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권 제1호, 2008.
- [12] 박진경, 동계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구축방안, 동계스포츠 확산과 지속적 발전 방안 세미나 논집, 한국체육학회, 2010.
- [13] ———, 2010동계올림픽 시설건설의 기본방향 및 사후 활용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1.

- [14] 삼성경제연구소,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CEO Information, 제745호, 2010.
- [15] 산업연구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보고서, 산업연구원, 2008.
- [16] 옥광, 김재수,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동북아시아의 정세,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1.
- [17] 이기현, 글로벌 시대의 TV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18] 이태영, 평창겨울올림픽 이제부터 시작이다, 스포츠포럼21, 제51호, 2011.07.
- [19] 이학래, 2010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 동계스포츠 확산과 지속적 발전방안 세미나 논집, 한국체육학회, 2010.
- [20] 임태성, 서세훈, 박현욱,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제도전에 대한 강원도민 의식조사,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제2호, 2008.
- [21] 임태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2010동계 올림픽 개최전략,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1호, 2001.
- [22] 최인석, 한국스포츠 신성장동력을 위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비전, 한국체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0.
- [23] 한국체육학회, 동계스포츠 확산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최종보고서, 한국체육학회, 2010.
- [24] 한승백,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공론장을 통해 나타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0.
- [25] 한희원, 올림픽 운동과 올림픽 시스템에 대한 규범과 고, 중앙법학, 제12권 제1호, 2010.
- [26]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효과, pp.11-17, 2011.
- [27] Barney, R., Wenn S., & Martyn, S., Selling the five ring: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the rise of olympic commercialism,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2002.
- [28] Berg, C., Politics, not sport, is the purpose of the Olympic Games, Review-Institute of Public Affairs, Vol.60 no.3, 2008.
- [29] Dccio, c. & Baloglu, s., Nonhost community resident Resident to the 2002winter olympic: The spillover impac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41 no.1. 2002.
- [30] Madden, J., Economic and fiscal impacts of mega sporting events: a general equilibrium assessment, Public Finance and Management, Vol.6 no.3, 2006.
- [31] Ritchie, J.R.B. & Smith, B.A., the impact of a mega-event on host region awarenes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0 no.1, pp.3-10, 1991.
- [32] Ritchie, J.R.B., How special event? the economic and strategic development of the New Zeland Masters Games,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4, pp.117-126, 1996.
- [33]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공식 홈페이지 : www.pyeongchaury2010.org
- [34] 강원발전연구원공식홈페이지: www.kdri.re.kr
- [35] 노컷뉴스. 2011.7.12.
- [36] 동아일보. 2011.7.9.
- [37] 조선일보. 2011.7.7.
- [38] 조선일보. 2011.7.9.
- [39] 조선일보. 2011.7.18.
- [40] 한국일보. 2011.7.18.

저 자 소 개

변 연 하(Yeon-Ha Byeon)

준회원



- 2010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현재: 국민은행여자농구단 소속

<관심분야> 프로구단 마케팅 및 관람 유형

• E-mail : sams10@nate.com

김 동 선(Dong-Sun Kim)

준회원



- 1987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졸업
- 1992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졸업
- 2011년 현재 경기대학교 재직

<관심분야> 체육정책,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 E-mail : kds@kyonggi.ac.kr

김 흥 태(Heung-Tae Kim)

정회원



- 1994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졸업
- 2003년 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졸업
- 2011년 현재 대진대학교 재직

<관심분야> 체육정책(남북체육교류협력/학교/생활체육 정책), 체육행정 및 경영

• E-mail : sn6899@daejin.ac.kr